

에서 심층적 파사심 과 뛰어 기사
를 낼 정도였다. 임신한 몸으로 남
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련한 화랑

느들 소싱에 노으셨... 일...
제위기가 닥치며 고스란히 뺏겨
로 돌아왔다 미술시장이 돈세탁

서울시립
미술시장이 돈세탁
2013. 11. 27
국제갤러리(주)

는 빗생이늘이 늘었으면 좋겠나
고 말했다.

오상도 기자 sdoh@seoul.co.kr

바퀴 자국... 에런 영 개인전

현대미술시장에서 주목받는 미
국 작가 에런 영(42)이 다음 달 15
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
러리에서 개인전을 이어간다. '오
토바이 바퀴자국을 잡은 남자'로
불리는 작가는 2007년부터 오토바
이 바퀴자국으로 만든 회화작품
(사진)을 선보여 왔다. 자동차가
고속으로 달릴 때 전복을 막아 주
는 스포일러 조각은 조각작품으로



형상화됐다.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
뭉개진 페인트는 물감처럼 강약이
교차하며 강렬함을 표현한다. 작가
는 "존 케이지가 트럭을 몰면서 종
이를 깔고 잉크자국을 남게 한 영

상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. 주유소
를 운영하던 양아버지의 영향도 받
았다"고 말했다. 유진상 계원예술
대 교수는 "에런 영의 작품은 1960
~1970년대 미국 경제부흥기에 일
어난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퍼
포먼스 등 미국 현대미술의 흐름을
반영하고 있다"고 평가했다. 전시
에선 미 캘리포니아 사막의 상공에
서 거꾸로 떨어진 자동차가 땅에
처박히는 '저항'이란 제목의 동영
상도 만날 수 있다. (02) 735-8449.